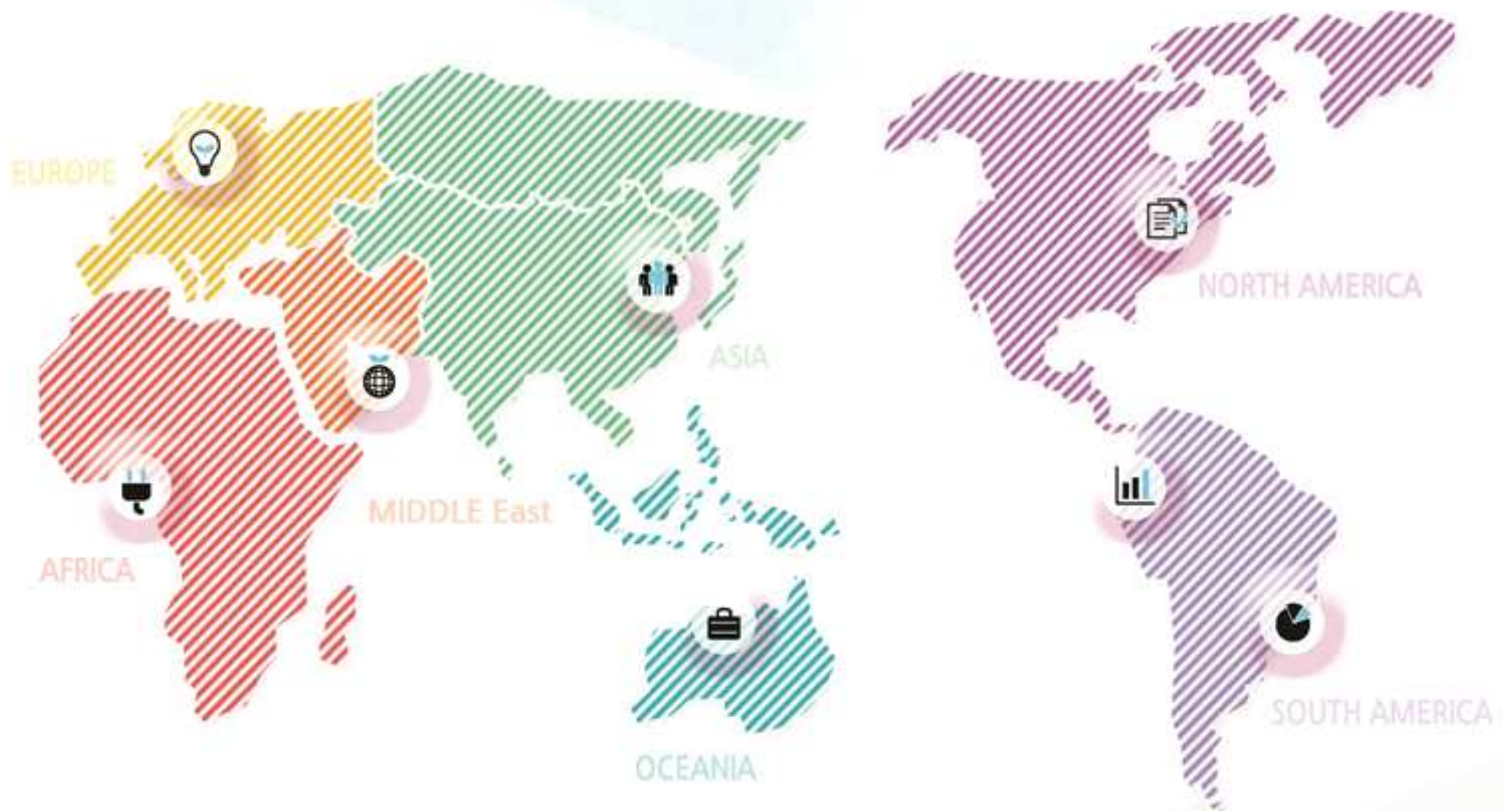




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

CONTENTS

목 차

요 약 / 1

I. 개 요 / 2

II. 2016년 지역별 수출여건 / 7

7	1. 북미
9	2. 중국권(중국·홍콩·대만)
11	3. 유럽
13	4. 일본
15	5. 아시아(동남아·서남아·대양주)
17	6. 중동(북아프리카 제외)
19	7. 중남미
21	8. CIS
23	9. 아프리카(북아프리카·사하라이남)

요 약

□ (전체) 우리나라 2016년 수출은 전년대비 2.7% 증가한 5,443억 달러 전망

○ 2016년 수출액은 2015년보다 144억 달러 증가할 전망

<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2014년		2015년		2016년	
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5,727	2.3	5,299	△7.5	5,443	2.7

주 :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, 2015년은 추정치, 2016년은 전망치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433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□ (수출) 2016년 지역 및 품목별 수출 전망

○ 지역별 수출

- 201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 예상
 - 유럽(3.3%), 북미(3.0%), 일본(1.9%) 등 선진시장의 수출회복 기대
 - CIS(4.6%), 중국권(3.5%), 아시아(3.2%), 중동(2.8%), 중남미(1.2%), 대양주(0.5%) 등 대부분 신흥시장 수출은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
- 한편, 아프리카(△8.8%) 지역으로 수출은 감소할 전망

○ 품목별 수출

- 기계류는 선진시장 경기회복과 전 세계적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, 반도체·자동차부품은 해외생산 증가 등 부품 수요 확대에 양호한 수출 예상
- 석유화학·석유제품·철강제품·섬유류 등은 원자재 가격 하락,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제품의 영향에 따라 수출이 감소할 전망

I 개요

□ (전체) 우리나라의 2016년 수출은 전년대비 2.7% 증가한 5,443억 달러 전망

○ 주요기관들은 2016년 세계 상품교역이 전년보다 3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* WTO : ('15)2.8% → ('16)3.9%, IMF : ('15)3.0% → ('16)3.9%

<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2014년		2015년		2016년	
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5,727	2.3	5,299	△7.5	5,443	2.7

주 : 2015년은 추정치, 2016년은 전망치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433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□ (지역별 수출) 201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수출이 전년수준에서 소폭 증가

○ 선진시장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을 주도할 전망

- 對유럽 수출은 EU의 경기회복세로 전년대비 3.3% 증가 예상, 對북미 수출은 저유가로 인한 미국경기 개선으로 전년대비 3.0% 증가 전망
- 對일본 수출도 경제 활성화 정책 등 개선의 조짐을 보이며 수출 전년대비 1.9% 증가할 전망

○ 신흥시장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일 전망

- CIS(4.6%)는 서방과 갈등에 따른 수입대체 현상으로, 중국권(3.5%)은 한·중 FTA 발효 이후의 수요 확대, 아시아(3.2%)는 한류효과 및 FTA 활용제고 영향으로 수출 증가 예상
- 2015년 수출이 급감한 중동(2.8%)은 이란시장 개방 예상으로, 중남미(1.2%)는 미국 경기회복의 수혜효과 등으로 수출이 전년수준에서 소폭 개선 전망

○ 對아프리카 수출은 현지 수입여력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8.8% 감소 예상

< 2016년 지역별 수출 전망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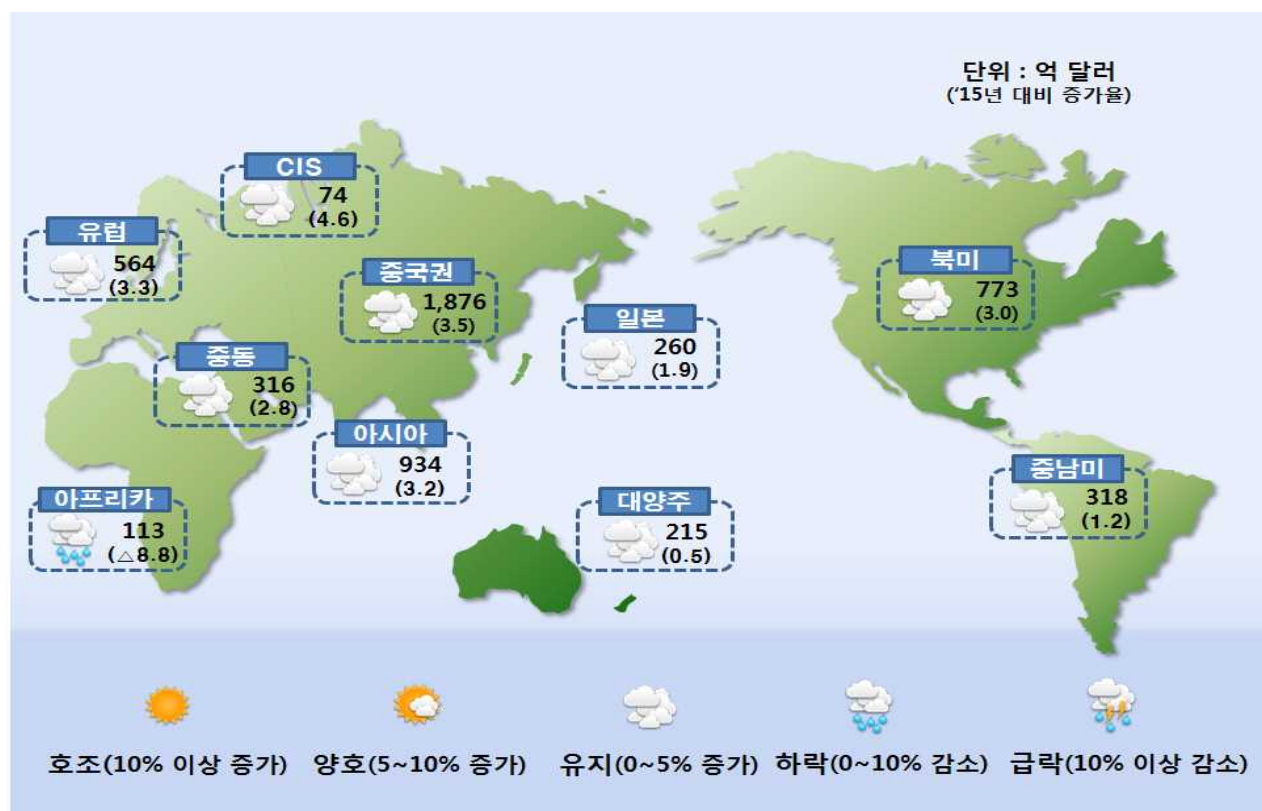
지역	2014년	2015년			2016년		
	금액	금액	증감률	비중	금액	증감률	비중
총계	5,727	5,299	△7.5	100.0	5,443	2.7	100.0
북미	752	750	△0.2	14.2	773	3.0	14.2
중국권	1,878	1,813	△3.4	34.2	1,876	3.5	34.5
유럽	543	546	0.5	10.3	564	3.3	10.4
일본	322	255	△20.8	4.8	260	1.9	4.8
아시아	1,001	905	△9.6	17.1	934	3.2	17.2
대양주	214	214	△0.1	4.0	215	0.5	4.0
중동	362	307	△15.2	5.8	316	2.8	5.8
중남미	359	315	△12.3	5.9	318	1.2	5.9
CIS	143	71	△50.5	1.3	74	4.6	1.4
아프리카	151	124	△18.3	2.3	113	△8.8	2.1

주1) 2015년은 추정치, 2016년은 전망

주2) 지역구분 : 아시아(동남아·서남아), 중국권(중국·홍콩·대만), 중동(북아프리카 국가 제외), 아프리카 대륙(북아프리카·사하라이남)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433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< 2016년 지역별 수출 기상도 >



□ 주요품목별 수출전망

- ▶ 선진시장 주도의 경기회복과 세계 주요국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등으로 기계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해외생산을 위한 부품소재 수요증가 등에 따라 반도체·자동차부품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보일 전망
- ▶ 그러나, 원자재 가격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, 저가제품 문제 등으로 석유화학·석유제품·철강제품·섬유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

○ (일반·정밀기계) 선진시장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, 신흥시장으로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 영향으로 기계류 수출이 증가

- 북미·유럽·일본 중심의 경기개선과 주요국 제조업 육성정책 활성화,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기계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

* '15.1~10월 수출증가율 : (기초산업기계)△2.2% (정밀기계)17.4% (기타기계류) 11.5%

○ (자동차·자동차부품) 자동차는 현지생산 증가와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자동차부품은 현지공장 부품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가 지속될 전망

- 자동차는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중동·중남미 지역으로 수출 증가 예상
- 특히, 자동차부품은 역외산 소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지역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

* '15.1~10월 국별 자동차 수출증가율 : (對사우디)18.8% (對멕시코)13.5%

* '15.1~10월 국별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: (對슬로바키아)5.2% (對체코)16.3%

○ (반도체) 현지공장 투자 영향과 스마트폰·태블릿 PC 수요확대로 모바일 관련 메모리 반도체 등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현지 투자가 이루어진 중국지역과 글로벌기업의 최첨단 기술투자가 이어지는 북미지역으로 수출 증가세 전망

* '15.1~10월 국별 반도체 수출증가율 : (對中)12.2% (對美)24.8%

○ (평판디스플레이) 스마트폰 수요증가로 OLED는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, LCD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전망

- 동남아·중동·CIS 등에서 고급형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상승

* '15.1~10월 국별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 : (對베트남)78.0% (對이집트)60.5%

- (무선통신기기) 애플과 중저가 중국산에 밀려 우리제품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,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부품 수요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
 - 유럽지역은 경쟁심화와 해외생산 비중증가로 직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, 동남아지역은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에 따라 부품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
 - * '15.1~10월 국별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: (對中)14.7% (對베트남)116.4% (對홍콩)97.9%
- (가전·컴퓨터) 가전제품은 TV의 부진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수출 성장이 기대되며, 컴퓨터 수출은 중국산 강세 가운데 유지할 전망
 - 컴퓨터 SSD(반도체 저장매체)의 수출은 양호할 전망
 - * '15.1~10월 국별 가전 수출증가율 : (對베트남)32.1% (對홍콩)24.8% (對사우디)45.1%
 - * '15.1~10월 국별 컴퓨터 수출증가율 : (對中)10.5% (對美)12.1% (對홍콩)37.3%
- (섬유류) 중국 경기둔화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, 제3국 생산 증가에 따른 경쟁으로 지역 전반에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 - 대부분 지역에서 중국·베트남 등 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할 전망
 - * '15.1~10월 국별 섬유류 수출증가율 : (對베트남)△2.7% (對中)△13.7% (對美)△2.7%
- (철강제품) 원자재 가격하락과 중국산 저가공세, 주요국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
 - 정부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유럽·일본·중동 등으로 수출은 증가 예상
 - * '15.1~10월 국별 철강제품 수출증가율 : (對美)△26.7% (對中)△17.7% (對日)△27.1%
- (석유화학·석유제품) 저유가 지속에 따른 단가하락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, 저가제품 공급 증가 등으로 부진이 예상되나,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유지
 - OPEC(석유수출국기구) 원유감산 합의 실패('15.12월)로 '16년에도 저유가는 고착화될 전망
 - * '15.1~10월 국별 석유화학 수출증가율 : (對中)△22.2% (對美)△26.4% (對인도)△29.7%
 - * '15.1~10월 국별 석유제품 수출증가율 : (對中)△36.3% (對日)△48.0% (對美)△3.2%
- (선박류) 선박관련 부자재 및 부품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저유가에 따른 발주 취소 우려 상존
 - * '15.1~10월 선박류 수출증가율 : △5.0%

< 2016년 주요 품목의 지역별 수출 전망 >

품 목 명 (MTI코드)	2016년 전망(2015년 대비 증가율)										
	전 체	북 미	중 국 권	유 럽	일 본	아 시 아	대 양 주	중 동	중 남 미	C I S	아 프 리 카
일반정밀기계 (71,72,73,75,79)											
자 동 차 (741)											
자 동 차 부 품 (742)											
평판디스플레이 (836)											
반 도 체 (831)											
무선통신기기 및 부 품(812)											
가 전 및 부 품 (82)											
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 품(813)											
섬유 및 의류 (4)											
철 강 제 품 (61)											
석 유 화 학 (21)											
석 유 제 품 (133)											
선 박 류 (746)											



호조(10% 이상 증가)



양호(5~10% 증가)



유지(0~5% 증가)



하락(0~10% 감소)



급락(10% 이상 감소)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433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II 2016년 지역별 수출여건

1 북미 [3.0% 증가]

미 연준 금리인상 우려 가운데 미국 중심의 경기회복과 달러강세 기조로 수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, 우리나라의 對북미 수출은 '15년 0.2% 감소에서 '16년 3.0%로 증가할 전망

□ 2016년 북미시장 주요변화

○ (미국) 저유가로 인한 경기회복은 호재, TPP와 금리인상은 경계

- 저유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, 기업투자 증대 등 경기회복세 실현
 - 유가하락이 현 추세 유지 시 '15년 휘발유 가격하락에 따른 美 소비자 지출절감 효과는 약 1,000억 달러(가구당 750달러)에 달함(美자동차서비스협회)
 - * 美 평균 휘발유가격(US\$/겔론) : ('14.7월)3.5 → ('15.7월)2.7 <△24.5% 하락>
 - 미국 제조업 회귀가 자국 제조업체 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시화
 - *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5)2.6% → ('16)2.8%
-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타결로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 본격 시작
 - 가입국별 비준 및 절차진행 등으로 '16년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, 美 주요 혜택산업(농축산업과 IT 등)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전망
 - TPP 발효 시 특정품목에 대한 수혜국 효과로 우리산업에 타격 우려
 - * (자동차부품) 對美 수출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약 80%는 협정 발효시 관세 즉시 철폐
 - * (섬유·의류) 對美 수출 베트남산 의류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
 - 대선 후보들의 TPP에 대한 견해가 달라,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은 유동적일 전망
-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 시 통화긴축 예상
 -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되면서 달러 강세 유지 가능성이 크며,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이 가중될 전망

- 금리인상은 신흥국 자금유출 가속화로 이어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
- (캐나다)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대응과 보호무역정책 지속
 - 원자재 가격하락에 대응한 금리인하·통화절하를 이어갈 전망
 - 유가하락으로 캐나다 에너지산업(석유·가스·광산)을 비롯한 산업전반 침체 지속
 - 기준금리 하향지속(0.5%)이 예상되면서 캐나다 달러화 평가절하도 우려
 - 통상개방 정책 가운데 보호무역정책 강화
 - 캐나다 정부는 북미지역 역내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
 - * Value chain 통합 가속화의 일환으로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 역내 산업협력 추진

□ 2016년 북미지역 수출여건

- 달러강세 기조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제고
 -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과 미국경제 회복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, 현지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
 - 단, 지속되는 엔저로 미국시장 내 우리제품 가격경쟁력은 일본대비 저하
- 철강관련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 증가 우려
 - '15.6월 발효된 무역조정지원 연장 법안에 따라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용이해져 최근 美 철강업체들의 제소건수가 급증하였고, '16년 에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됨

□ 對북미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- (호조품목)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, 가전, 일반·정밀기계 등
 - 주로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와 모바일 인터넷 속도 증가(무선통신기기·반도체), 미국 소비자 가처분소득 증가(가전)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
- (부진품목)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섬유류 등
 - 엔저 및 완성차 제조업체의 현지생산 증가(자동차), 저유가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(석유화학·석유제품),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(섬유류)

2 중국권 [3.5% 증가] * 중국, 홍콩, 대만

중국의 중성장 기조 가운데 국가차원의 경쟁력 강화정책과 경기부양 본격화, 한·중 FTA 발효 가능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권 수출은 '15년 3.4% 감소에서 '16년 3.5%로 증가할 전망

□ 2016년 중국권 주요변화

- (중국) 중성장 기조 속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박차
 - '16년 중국 경제성장률 6% 중후반대로 중성장 지속 예상
 - '13.5 규획' 건의안에 따라 중국은 향후 5년 연평균 6.5% 이상 성장 전망
 - *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5)6.8% → ('16)6.3%
 - 제조업 업그레이드(중국제조 2025) 및 인터넷 융합정책 본격 추진
 - 중국은 정보기술, 의료기기, 전력설비, 항공우주, 신소재, 로봇, 신에너지 자동차 등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* 추진
 - * 1)제조업 혁신센터 2)스마트 제조공정 3)공업기반 강화공정 4)녹색제조 공정 5)고급장비 혁신공정
 - 중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'일대일로' 추진
 - 인프라(철도·항만·도로·해운) 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신규수요 창출과 중앙아 일대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중국의 국제적 위상강화 의지
 - * 일대일로 지역 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세계의 29% 차지, 상품·서비스 수출은 23.9% 규모
 -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연내 발족을 통한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
- (대만) TPP 신규가입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움직임
 - 대만은 TPP 신규가입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며, 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對일본·베트남 협력을 확대해 TPP를 간접적으로 활용할 전망
 - 중국發 홍색 공급망(Red Supply Chain) 위협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
 - 최근 중국기업의 적극적 글로벌 공급사슬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 업계 간 연합 등 제휴 활발

- 디스플레이 산업도 주변경쟁국(한·중·일)에 밀려 시장 주도권 위기
 - * 대만의 디스플레이 對中 수출액(달러) : ('12)157 → ('15^p)119
- (홍콩)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 가운데 내수경기 진작 노력
 - 중국 경기부진과 위안화 강세로 對中 재수출 규모 감소, 소매경기 까지 침체되었으나 신형도시화 추진, 무역개방 등 내수활성화 움직임
 - * 홍콩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5)2.5% → ('16)2.7%

□ 2016년 중국권 수출여건

- 한·중 FTA 발효 가능성으로 수출증가 기대 증폭
 - 한·중 FTA로 일부품목(생활가전·기능성의류·유리제품 등) 수출 확대
 - 對中 수출 걸림돌인 통관지연·인증검역 등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해소 기대
- 중국정부의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에 지속 주력하는 점은 긍정적
 - * 소비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'15년 3분기 기준 50% 초과
-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연과 외부 악재는 여전히 경계 대상
 - 美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, 중국 수출부진세로 경기둔화 지속 예상
 - 그러나 위안화 약세로 중국 대외교역은 다소 개선될 가능성 존재
 - * OEC, OOC 중국의 수출입 예측(%) : ('15년) 수출 △26, 수입 △14.7 → ('16년) 수출 1.3, 수입 0.2

□ 對중국권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- (호조품목)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일반·정밀기계, 가전, 선박류 등
 - 스마트폰·태블릿PC 수요확대 효과 및 로컬브랜드 성장에 따른 수요 지속 (반도체·무선통신기기), '중국제조 2025'에 따른 관련장비 수입 증가(기계), FTA 효과(가전), 신형 어선 개조생산에 대한 수요량 대폭 상승 예상(선박)
- (부진품목) 석유제품, 자동차·자동차부품, 철강제품, 섬유류 등
 -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수요 감소(석유제품), 로컬브랜드 강세 및 현지 생산의 영향(자동차·부품), 중국의 경기부진과 여전한 저가공세(철강제품), TPP 효과와 중국기업의 부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(섬유류)

3 유럽 [3.3% 증가]

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EU 회원국 대부분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EU기금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**對유럽 수출은 '15년 0.5% 증가에서 '16년 3.3%로 증가할 전망**

□ 2016년 유럽시장 주요변화

- EU 회원국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강화 예상
 - ECB(유럽중앙은행) 양적완화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, 소비·투자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
 - * '16년 경제성장률(% EU집행위) : (독일)2.0 (영국)2.4 (스페인)2.7 (폴란드)3.5 (그리스)△1.3
- OEM(주문자상표부착생산) 원가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및 차세대 R&D 강화
 - 글로벌 기업의 유럽산 공급선 대체 등 수익확보를 위한 움직임 확대
 - * 폴크스바겐(VW)은 '16년부터 연 10억 유로 투자비용 감소, 전기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
 - * '15.1~10월 對EU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은 8.3%
 - 전기차, 커넥티드카(자동차+IT)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형성 본격화
 - * 2차 전지, 텔레매틱스,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
- 유럽 내 정치·경제적 불안요소는 상존
 - 테러범 난민 위장입국과 IS테러 위협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 등 영향
 -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수출부진, 對러시아 경제제재 지속으로 교역시장 타격 우려
 - * '15.1~9월 EU의 對러시아 수입 △41.5%, 對중국 수출 △13.5%

□ 2016년 유럽지역 수출여건

- EU 기금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로 관련수요 확대
 - EU 균형발전을 위해 2014~2020년 간 총 3,518억 유로의 기금 배정,

20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의 프로젝트 발주 개시로 기회시장 확대

* ICT, 에너지 프로젝트 등 우리 기술경쟁력 보유 분야의 동유럽시장 진출 유망

○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경계

- ECB 양적완화와 함께 美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유로화 약세가 강화되어 역내기업·중국 등의 제품과 가격경쟁이 심화될 전망

* 달러/유로 전망 : ('14.1월)1.36 → ('15.10월)1.13 → ('16.10월)1.00 (Commerzbank)

□ 對유럽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○ (호조품목) 자동차부품, 철강제품, 일반·정밀기계 등

- OEM 원가절감을 위한 역외소싱 증가 예상(자동차부품), 동유럽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(철강제품),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으로 수입수요의 안정적 성장(기계)

○ (부진품목) 자동차, 무선통신기기, 평판디스플레이 등

- 현지공장 생산증가 추세(자동차), 중국산 등과 경쟁심화 및 해외생산 비중 증가(무선통신기기), 유럽 내 대형 LCD 공급과잉(평판디스플레이)

* 유럽 판매차량의 90% 체코·터키 생산(현대차), 공급량의 55% 슬로바키아에서 총당(기아차)

4 일본 [1.9% 증가]

일본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소비세 재인상에 대비한 소비수요 증대 등 긍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엔저와 TPP 영향이 이를 다소 약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**對일본 수출은 '15년 20.8% 감소에서 '16년 1.9%로 증가** 전망

□ 2016년 일본시장 주요변화

- 아베 3차 수정내각 출범('15.10월) 이후 국내경제 활성화 정책 총력 기대
 - 안전보장관련 헌법개정안 통과('15.9월), TPP 전격 합의 도출('15.10월)로 2016년 일본 경제 활성화 내각 역량에 집중할 전망
 - *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5)0.6% → ('16)1.0%
 - * '16년 일본경제 평균 1.65% 성장 전망(일본 13개 민간연구소 종합)
-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예상
 -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'16.4월부터 가정용 전력소매의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기업 간 경쟁은 격화, 전력사별 해외조달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
 - * 전력사별 해외조달비중 확대계획 : (도쿄전력)10% → 30%, (간사이전력)0.3% → 30%
- '16.1월 마이넘버(개인·법인에 부여된 12자리 번호)제도 전면 시행
 - 사회보장, 세금, 재해대책 등 행정서류 제출에 마이넘버 기재가 의무화 되어 정부기관의 넘버관리 보안솔루션 등 관련시스템 수요증가 예상
 - * 일본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전망(억엔) : ('14)3,594 → ('18)4,712

□ 2016년 일본지역 수출여건

-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대비한 소비수요 증대
 - 소비세율 2차 인상('17.4월) 예정으로 소비재 등 '16년 선취 수요확대 전망
 - * '14년 소비세율 인상 직전 에어컨, 냉장고, 컴퓨터, TV, 핸드폰 등 5개 가전 제품 판매량 급증

- TPP와 엔저로 수송기계의 일본 국내생산 확대 가능성 대두
 - 발효 5년 후 이륜자동차 관세철폐와 자동차부품 55% 이상 역내조달 등 누적 원산지 규정은 일본 국내생산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엔화 약세와 중국산 점유율 증가는 우리 수출에 여전한 위협 요소
 -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'12년부터 엔화 약세 지속, 매년 對日 수출 감소
 - * 對日 수출증가율 추이(억달러) : ('13)346.6 → ('14)321.8 → ('15.1~10월)215.1
 - * '16년 달러대비 예상환율은 125.3엔(일본 9개 민간연구소 평균치)
 -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산의 비중은 지속 증가세
 - * 일본 수입시장내 중국산 점유율(%) : ('13)21.7 → ('14)22.3 → ('15.1~8월)23.9

□ 對일본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- (호조품목) 일반기계, 철강제품 등
 -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정책으로 설비투자·유지보수 등 수요 견조(기계),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자재 수요 증가(철강제품)
- (부진품목)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, 자동차, 석유제품 등
 - 소비자의 아이폰 선호경향(무선통신기기), 일본 가전업체 해외생산 고착화(반도체), 생산체제 글로벌화와 국내생산 확대추세(자동차), 인구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(석유제품)
 - * 일본자동차 해외생산 추이(만대) : ('90)326 → ('00)629 → ('14)1,747 (日자동차공업회)

5 아시아(동남아·서남아)·대양주 [아시아 3.2% 증가 / 대양주 0.5% 증가]

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과 인도 경제성장, 아세안·베트남·호주 FTA 효과 증대에 대한 기대로 우리나라의 對아시아 수출은 '15년 9.6% 감소에서 '16년 3.2%로 증가, 對대양주 수출은 '15년 0.1% 감소에서 '16년 0.5%로 증가 전망

□ 2016년 아시아·대양주시장 주요변화

- 아세안경제공동체(ASEAN Economic Community; AEC) 출범 효과
 - 아세안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품관세 철폐, 회원국별 쿼터제,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 전망
 - * '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 교역 상품관세의 99% 철폐, CLMV(캄보디아·라오스·미얀마·베트남)는 98.6% 철폐, '18년까지 민감품목 포함 완전 철폐
-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
 - 중국 주도의 AIIB 출범으로 연 80~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기회를 창출하는 등 인프라 개발 붐 조성과 경기 활성화 기대
-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
 - 중산층 인구급증으로 동남아 소비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, 베트남·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률은 연 20~25%에 달함
- 'Make in India' 정책 지속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
 -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지속
 - * FDI 한도상향 : (방산·보험)26% → 49% (철도인프라)100%

□ 2016년 아시아·대양주지역 수출여건

- 아시아·대양주지역 FTA 효과 기대
 - (한·아세안 FTA) 무역원활화 규정, 상호주의 제도 축소,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 협정내용 개정

- (한·베트남 FTA) 2016년 발효 예정으로 한·아세안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
- (한·호주 FTA)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 제도도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·인력 교류기회 증가 기대

○ 한류품목 중심의 소비재 수출 증가

- 한류효과와 중산층 확대로 한류 소비재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관련 수출도 지속 증가할 전망

* 對아세안 최근 3년 평균 수출성장률 : (화장품·식품·의류) 22.7% (콘텐츠산업)9.5%

○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현지통화 약세는 위협요인

- 對中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·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 중심의 수입 여건이 악화될 우려, 연초 대비 10% 이상 현지화 가치하락

□ 對아시아·대양주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○ (호조품목) 일반·정밀기계,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, 자동차부품, 섬유류 등

- 동남아 글로벌 생산기지화(기계·무선통신기기), 베트남·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추가 설비투자 증가 전망(반도체), 현지진출 기업에 부품 공급 시작(자동차부품), TPP 발효로 현지 생산량 확대 영향(섬유류)

○ (부진품목) 철강제품, 석유제품 등

-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과 중국산의 시장잠식(철강제품), 국제 유가 감소세 등 대외변수의 영향(석유제품)

6 중동 [2.8% 증가] * 북아프리카 제외

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우려 가운데 정부 중심의 산업다각화 정책과 프로젝트 추진, 이란시장 개방 기대효과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'15년 15.2% 감소에서 '16년 2.8%로 증가 전망

□ 2016년 중동시장 주요변화

○ 저유가 기조 지속

-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는 2016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

* GCC 국가별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 : (UAE)80% (사우디)90% (쿠웨이트)88% (오만)85% (카타르)80%

○ 이란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기대

-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2016년 상반기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

- 제재 해제 후 교통, 수자원 등 인프라, 자원·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

* South Pars 가스전,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

○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회투자프로젝트 진행

- GCC 국가들 중심의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발주 취소나 연기 추세에 있으나, 민생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전망

* 국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PPP(Public-Private Partnership) 발주 증가 예상

○ ISIL,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중심지역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

□ 2016년 중동지역 수출여건

○ 저유가 지속에도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경주

- 원유수입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로 중동 각국에서는 산업다각화와 제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

- 이에 따라, 프로젝트 발주와 관련기자재 납품에서 한국제품 진출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
- 달러화 대비 현지화 가치 하락, 가격경쟁력 약화는 불가피
 - 쿠웨이트, 터키 등에서는 현지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수요가 둔화될 전망
 - 엔저나 유로화 약세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

□ 對중동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- (호조품목) 일반·정밀기계, 무선통신기기, 자동차·부품, 철강제품, 가전 등
 -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요 지속(기계), 테러 위협에 따른 보안용 무선기기 수요증가(무선통신기기), 한국제품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관련부품 수요 확대(자동차·가전), 주요 프로젝트 발주 착수(철강제품)
- (부진품목)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선박류, 섬유류 등
 - 저유가로 단가하락과 저가제품 공급으로 가격경쟁(석유화학·석유제품), 국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수요 하락(선박류), 제3국 생산증가 및 일본·중국·일본산과 경쟁(섬유류)

7 중남미 [1.2% 증가]

원자재 가격하락과 현지화 평가절하의 부정적인 대외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회복 영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'15년 12.3% 감소에서 '16년 1.2%로 증가 예상

□ 2016년 중남미시장 주요변화

- 자원수요 사이클 퇴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지속
 - 원자재 가격하락과 신흥국 불확실성 증대, 美금리인상 등에 크게 좌우되는 중남미 시장은 2016년에도 대외여건에 취약할 전망
 - *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5)△0.3% → ('16)0.8%
 - * '15.9월 기준 물가상승률 : (베네수엘라)68.5% (아르헨티나)14.7% (브라질)9.5% (우루과이)9.1%
- TPP 협정을 활용한 아시아권 진출확대 예상
 - 북미에서는 멕시코, 미국, 캐나다의 생산라인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, 페루와 호혜적 관계 강화
 - 중남미 TPP 가입국(멕시코·페루·칠레)의 일본 및 아시아 6개국(호주·뉴질랜드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베트남·브루나이)시장 진출기회 확대
- 남미를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
 - 페루가 남미의 허브로 부상하고 남미국가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TPP 시장만 아니라 남미 거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할 전망
 - * 비전통산업 생산품의 36%(약 42억 달러) 상당 제품의 TPP 지역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□ 2016년 중남미지역 수출여건

- 미국경기 회복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수혜효과 기대
 -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멕시코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회복되어, 對중남미 수출이 증가할 전망

○ 한·중미* FTA 체결 시 진출기회 마련

* 중미 6개국 : 파나마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

- 한·중·일 경쟁이 치열한 중미시장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FTA 체결을 하면 해당시장 선점과 한국산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
- 이에 따른 파나마, 니카라과 등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프로젝트 진출 확대기반 확보 가능

○ 한국기업 진입장벽 심화 예상

- 특히 칠레의 경우,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현지 경쟁구도가 심화될 전망
- * '15.1~9월 對칠레 자동차 수출이 한국은 전년 동기대비 29% 하락한 반면 일본은 2% 하락에 그침

□ 對중남미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○ (호조품목) 일반·정밀기계, 자동차·부품, 석유화학, 가전 등

- 멕시코의 생산공장 설립으로 신규라인·부품조달 예상(기계·자동차부품), 제조업 성장과 2016년 경기회복 영향(석유화학), 내수시장 성장으로 백색가전 수요 증가(가전)

○ (부진품목) 철강제품, 무선통신기기, 평판디스플레이, 섬유류 등

-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가격경쟁 심화(철강제품), 중저가제품 수요 확대와 달러화 강세 영향(무선통신기기), 물가상승·금리인상 등에 따른 소비력 상실(평판디스플레이)

8 CIS [4.6% 증가]

CIS 지역 전반의 경기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서방과의 갈등으로 러시아가 아시아로부터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對CIS 수출은 '15년 50.5% 감소에서 '16년 4.6%로 증가할 전망

□ 2016년 CIS시장 주요변화

-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 체제 강화 및 확대
 - EEU 출범('15.1월) 후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외 경제권이 확대되고 있으며, 국별 제품인증과 규정통합은 2016년 초 완료예정으로 경제 활성화 본격화 전망
 - * '15.5월 EEU·베트남 FTA 체결, EEU와 FTA 체결 희망국가는 '15.11월 기준 약 30개국
- 자국산업 육성·보호정책 강화
 - 루블화 가치 급락, 유가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산업 육성정책 추진
 - * 러시아 '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', 우즈베키스탄 '2015~2019 국산화 프로그램' 등
 - 외국산 공공조달 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
 - *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 기업에 대한 엔지니어링, 의료 등 일부 공공조달 참여 제한
- 러시아-서방 간 갈등 지속 가운데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추진
 - 러시아-서방 상호제재 연장 등 지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* EU는 對러 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, 러시아는 對EU·美 농식품 금수조치 '16.8월까지 연장
 - 대신 러시아는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할 전망
 - * 러·중 포괄적 경제협력 체결('15.5월), BRICS 국가의 신개발은행(NDB) 출범('15.7월),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법안 발효('15.3월)로 아태지역 협력강화 등

□ 2016년 CIS지역 수출여건

- CIS지역의 전반적 경기회복 예상
 -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러시아의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CIS국가들

대부분 2016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전망

*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CIS ('15) $\Delta 2.7\% \rightarrow$ ('16) 0.5% , 러시아 ('15) $\Delta 3.4\% \rightarrow$ ('16) 0.2%

○ 러시아의 서방과 갈등에 따른 유럽산 수입대체 효과

- EU의 對러 경제제재 지속으로 러시아는 아시아로부터 대체 수입을 확대할 전망

○ 환율의 안정화, 재고 소진 등으로 수입재개 움직임 기대

-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수입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으나 달러당 60루블대 환율로 다소 안정화 추세, 기존 재고분 소진 후 수입상들의 수입재개 예상

□ 對CIS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○ (호조품목) 일반·정밀기계,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 등

- 대형프로젝트 관련설비 유럽산 대체 수입선 발굴(일반·정밀기계), 군용 및 특수목적 수요증가(반도체), 시장위축 가운데 한국산 프리미엄 효과(평판디스플레이)

○ (부진품목) 자동차, 철강제품, 가전, 석유화학 등

- 루블화 약세와 현지생산 강화, 중국·인도브랜드 진출(자동차), 자국산업 육성정책과 중국산 영향(철강제품), 소비자 구매력 감소(가전), 석유화학 산업 현대화로 현지생산 증가(석유화학)

9 아프리카 [8.8% 감소] *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

원자재 가격하락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아프리카 지역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이에 따른 수입여력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**對아프리카 수출은 '15년 18.3% 감소에서 '16년 8.8% 감소 전망**

□ 2016년 아프리카시장 주요변화

-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아프리카 주요국 수입여력 감소
 - 원유·광물자원 수출의 경제구조를 가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재정적 어려움
 - * 사하라이남 원유수출국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('14)5.9% → ('15)3.5% → ('16)4.1%
 - 아프리카 주요국(남아공·이집트·모로코)의 달러대비 현지화폐 가치하락 지속
- 아프리카 최대 경제통합 TFTA(Tripartite Free Trade Area) 가시화
 - 아프리카 대륙 3대 경제공동체* 2017년까지 통합
 - *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(COMESA), 아프리카경제위원회(ECA),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(SADC)
 - * 공식 출범시 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 명, 1조 달러 경제규모 예상
 - 지역경제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인프라 개발, 산업화 등 가속화 전망

□ 2016년 아프리카지역 수출여건

- 원자재 가격 하락, 현지화 평가절하로 경기침체는 지속
 - 나이지리아·앙골라 등 원자재 수출이 재정수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공산품 수입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어려움 발생 우려
- 아프리카 소비시장 확대와 트렌드 변화는 긍정적
 - 과거 10년간 고성장과 인구증가는 소비시장의 꾸준한 확대를 견인한 가운데, 젊은층(블랙다이아몬드)이 소비를 주도하는 경향
 - * 아프리카의 중산층 인구전망 : ('10년)3.5억명 → ('30년)5억명 (UN 인구통계)

□ 對아프리카지역 수출 호·부진 예상품목

○ (호조품목) 일반·정밀기계 등

-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기계류 수요 지속, 각종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중장비 수요증대(기계)

○ (부진품목) 무선통신기기, 석유화학, 철강제품 등

- 대다수 제품이 중국·베트남산(무선통신기기), 유가하락 영향과 한국산 가격경쟁력 약화(석유화학), 남아공 철강산업 보호 가능성 및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확대(철강제품)

- '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' 조사개요 -

- **조사목적** : 주요지역별 우리나라의 무역여건 점검 및 수출기업에 정책자료 제공
- **조사내용**
 - 2016년 지역별 시장의 주요변화
 - 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전망 및 전망 근거
 - 지역의 주요품목별 수출여건 등
- **조사대상** : 10개 지역
 - 북미, 중국, 유럽, 일본, 동남아대양주, 서남아, 중동, 중남미, CIS, 아프리카 등



작 성 자

◆ 북미지역본부	이나래
◆ 중국지역본부	이은영 과장
◆ 유럽지역본부	이수영 차장
◆ 일본지역본부	김일경 차장
◆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	이상훈 과장
◆ 서남아지역본부	박영선 차장
◆ 중동지역본부	이효연 과장
◆ 멕시코시티무역관	민희정 차장
◆ CIS지역본부	우상민 차장
◆ 요하네스버그무역관	권의진
◆ 통상전략팀	서진영 전문위원



Global Market Report 15-050

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

발 행 인 ■ 김재홍
발 행 처 ■ KOTRA
발 행 일 ■ 2015년 12월
주 소 ■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 화 ■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■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15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

Global Market Report

www.kotra.or.kr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